

로버트 A. 피터슨 박사, 교회와 마지막 것들, 세션 7, 교회의 역사적 신학

© 2024 Robert Peterson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교회 교리와 최후의 것들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로버트 A. 피터슨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7, 교회의 역사적 신학입니다.

우리는 교회 교리에 대한 강의를 계속합니다.

이제 성경 이야기를 다룬 후, 신의 백성을 다룬 구약과 신약의 교회의 그림, 그리고 구약의 신의 백성에 대한 꽤 긴 섹션을 다룬 후, 역사 신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사 신학은 교회가 수세기 동안 성경의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교리의 역사라고도 불리며, 성경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체계적 신학을 공식화하는 한 분야이며, 확실히 주해와 성경 신학에 기반해야 하지만 역사 신학도 고려합니다.

우리는 교회 교리의 역사에서 몇 가지 하이라이트만 짚어보고자 합니다. 즉, 성 키프리안,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신조,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공헌, 보니파시오 8세와 그의 특별 저술인 *Unum Sanctum*은 로마 교회에 놀라운 힘을 주장했습니다. 와이클리프, 얀 후스,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벨직 신앙고백, 그리고 마지막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키프리안, 키프리안은 북아프리카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마찬가지로 수사학 교사였으며, 개종하여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카르타고 주교로 승진했습니다. 그의 연대는 대략 200년에서 210년 사이이며, 그의 생년월일은 258년으로, 그의 사망 시기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연대입니다. 그는 테르툴리아누스만큼 존경하고 경의를 표했던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목사이자 지도자였으며, 목회 문제, 특히 분열주의 문제를 다루는 그의 방식은 그를

영향력 있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 문제 중 일부는 계속되었습니다.

문제는 교회에서 발생했는데, 특히 로마 황제가 교회를 박해했을 때 그랬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이라고 불렸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해 중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을 교회는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요? 교회는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데키우스 박해를 포함한 모든 주요 박해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키프리안은 중요한데, 그는 사람들을 땅에 세우고, 받아들이고, 실수를 받아들이고, 그들이 일련의 참회를 거치도록 허용하여 그의 평가와 동료 지도자들의 평가에서 그들의 진정한 회개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조했고, 그는 하루의 끝에 세웠고, 교회의 통일은 신학적인 것보다 주교들 사이에서 더 주교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바티안, 타락한 자들의 노바티안주의는 타락한 자들이 이러한 분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는 자들과 분노한 자들 사이에 이러한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목사님은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당신의 목사님은 도망갔습니다. 글쎄요, 도망간 사람들은 때때로, 목사님들이 다 죽으면 누가 그런 목회를 하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쉬운 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한 맥락에서 키프리안의 어떤 말씀들은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위해 신을 가질 수 없고, 어머니는 교회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가장 중요한 글은 교회의 연합을 촉구하고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글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은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키프리안의 눈에는 교회에 속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신을 가질 수 없고, 어머니는 교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교회에 속하지 않는

현대적 현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의 서신, 서신 73, 21절에서 또 다른 유명한 말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이자 문제 해결자로서 문제에 직면한 그는 신학적 원칙보다 주교, 주교를 강조하여 분열이라는 어려운 문제와 박해 시기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경 사본을 넘긴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같은 해에 열린 제1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325년 니케아에 이어 기독교 교회의 두 번째 에큐메니칼 공의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사실, 니케아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증하고 아리우스에 대항하여 아타나시우스를 확증했지만 아리우스주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81년의 이 공의회는 동방 제국에서 아리우스의 정치적, 신학적 지배의 50년, 50년의 0년을 끝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첫 번째 공의회는 니케아 정통의 회복과 니케아 정통의 확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니케아는 아리우스에 반대했는데, 아리우스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창조한 최초의 피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는 창조된 존재이지만 성령 교리에 대해서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니케아 공의회는 니케아 정통의 강조점을 회복했고 또한 그 정통을 성령을 포함하도록 확장했습니다. 즉, 니케아 정통의 회복과 성령론적 확장이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381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는 신앙 고백의 일부로서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는다는 매우 유명한 진술을 합니다. 그 네 가지 형용사에서 파생된 명사, 통일성, 신성함 또는 거룩함, 그리고 가톨릭성은 로마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보편성과 사도성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는 신조적으로 우리가 신조와 고백을 상징이라고 부르는 기초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콘스탄티노플과 그 신조는 교회의 네 가지 속성으로 이어지는 어휘를 제공했습니다. 우리는 속성과 표시를 모두 다를 것입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대로 속성은 교부적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정의하는 데 도움을 준 교부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위해 사는 덕분에 거룩합니다.

그것은 어디에 있는 가톨릭입니다. 그것은 지상의 보편 교회의 일부이며 사도적입니다. 우리는 로마와 개혁자들이 그 표현이 의미하는 바에 있어서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 개신교는 성직 안수에 있어서 베드로의 어떤 후손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것이 교회를 사도적으로 만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과 그 의미를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354~430, 그의 연대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기독교회의 첫 수백 년과 수백 년 동안 그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모두 그에게 공을 돌리고 복음에 대한 그의 이해를 재발견했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개략적으로는 그들이 그의 관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명확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칼빈은 유명하게도 아우구스티누스로부터 그의 신학 전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에 관해 많은, 많은 것들을 말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역사적 신학적 요점에 대한 우리의 조사에서 우리가 다루는 몇 가지에 불과합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있지만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뿐입니다. 기독교인들 자신과 그들의 머리는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한 분의 그리스도를 형성합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이고 우리가 많은 것이 아니라, 많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리와 몸으로 이루어진 한 사람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시편 주석, 시편 127편에 대한 주석과 3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이시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측면에서 말입니다.

물론 다른 면에서는 우리는 많지만,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한 몸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우리는 서로 합해졌어요. 그리고 머리와 몸의 그 그림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서 그 이미지는 몸의 삶, 즉 지체들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것이 강조점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서 머리로서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그가 교회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더 많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의 주님입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어거스틴의 말은 그를 따른 수백, 수백 년의 교회 역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제 실천에서 자신이 목사임을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뒤섞인 인용문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그의 유명한 글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가톨릭 교회, 그리고 아마도 로마를 이해하고 싶지만, 로마만큼은 아니더라도, 기독교 교리에 대한 서기 400년경 교회의 기본 견해가 시작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수사학 교사인 오거스틴은 "나는 교활한 변호사들에게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능력을 주고 있다"고 말하며 포기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마지막 부분에서 설교학에 대해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수사학, 수사학 훈련, 교사로서의 경험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는 교회가 믿는 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실, 기독교 교리는 해석학 연구로 유명합니다. 그는 표징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바를 요약한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글이며, 우리에게 성경 해석의 원리를 가르쳐줍니다. 그런 다음 수사학 교사는 설교학 교사가 되어 학생과 독자에게 교회가 믿는 바를 전달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그런데, 기독교 교리에 대한 3장 45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합된 교파의 가르침. 그것은 완전히 순수한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재세레파를 제외하고는 끝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로마와 개혁가 모두에게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르게 가르쳤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참된 구성원은 혼합된 몸이기 때문입니다. 좋아요. 그리고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정 개인이 무엇인지 항상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참된 회원은, 인용하자면, 정해진 수의 택함받은 자들뿐입니다. 이것은 그의 세례에 대한 논문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5절, 38절. 그러니까요. 글썄요, 나중에 보죠.

갈등의 시대, 교회가 내부에서 불안정해지는 시대, 외부에서 박해받는 시대가 아니라 쇠퇴하는 시대, 복음이 숨겨지는 시대 등등. 개혁 이전의 일부인 위클리프와 후스는 예정에 표현된 하나님의 주권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으로는, 겉으로는 교회가 엉망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스, 위클리프, 그리고 몇 백 년 후 루터의 평가에 따르면 중세 후기 로마 가톨릭 교회는 놀랍게도 그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 알려졌습니다. 교회는 결코 그 교회를 실패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택함받은 자의 숨겨진 숫자, 그런 것.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어거스틴의 사상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종교 개혁을 통해 시대를 거쳐 울려 퍼져서, 지금 칼빈주의자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어거스틴의 칼빈 주의 전통에 속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보니파시오는 교황이었습니다. 보니파시오라는 이름을 가진 다른 교황들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는 보니파시오 8세입니다.

Unum Sanctum, 하나의 거룩한 기관 또는 교회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처럼 들리며 의도적으로 고안되었습니다. 그는 1302년에 발표된 이 놀라운 성명에 대한 신조 권위, 신조 배경 및 권위를 주장합니다. 역사를 통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추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의 주장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는 신앙에 의해 믿고 붙잡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가톨릭 교회와 사도 교회가 하나 있다고 굳게 믿고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 가톨릭을 의미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보시다시피요. 그리고 이 교회 밖에는 구원도 죄 사함도 없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콘스탄티노플을 들을 뿐만 아니라 키프리안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파스 교황의 의미는 이 지상의 로마 가톨릭 기관 밖에 있습니다. 구원도 없고, 이 유일하고 유일한 교회의 죄 사함도 없습니다.

몸은 하나이고 머리는 하나이며 괴물처럼 두 개의 머리가 아닙니다. 즉, 그리스도는 유일한 머리고 그리스도 대리자입니다. 지상에서 그의 대표자는 베드로이며 베드로의 후계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에게 헌신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의 양떼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1054년의 위대한 시스템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 당시 동방 정교회는 로마 와 결별했고 ,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와 로마의 교황은 서로에게 저주의 저주를 내렸습니다. 웃거나, 때로는 울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그들은 서로를 파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파스는 정교회를 이단 교회로 여깁니다. 왜? 그것은 로마에 속하지 않습니다.

한 우리 와 한 목자 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분명히 그는 1302년에 존재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 제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유대인 신자들, 즉 원래의 신자들과 함께 이방인들을 교회에 데려오신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말씀에서 배웁니다. 여기에 좀 더 허황된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서 이 교회와 그녀의 권세 안에 두 개의 칼, 즉 영적과 현세적 칼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사도가 "보라, 여기 두 개의 칼이 있다"고 말했을 때,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게 당신이 가져가야 할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의 해석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보라, 여기 교회에 있는 것이니, 사도들이 말했기 때문에 두 개의 칼이 있습니다.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셨다. 너무 많지만 충분하다. 보니파시오의 주석에 따르면, 두 개의 칼 중 하나는 영적 칼이다.

로마는 기독교 세계의 영혼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일시적인 칼입니다. 로마는 지상의 정부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권력 주장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군주들은 그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감명받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다른 도시 국가의 군주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공식적인 로마 가톨릭 교리입니다. 와이클리프, 지금은 그에 대한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확실히 어떤 면에서 개혁가 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의 정확한 출생일을 모르지만 대략 1329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1384년에 사망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영국 학자였으며 그의 연구는 그를 로마 가톨릭 교회를 점점 더 비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1377년에 로마에 의해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의 성경 연구는 그가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사제직의 성사적 권한인 성체 변화를 거부하게 했습니다. 저는 날짜를 바로 알지 못합니다.

로마 가톨릭 사제의 서임은 교회법이 되었고 로마에 따르면 여전히 유효합니다. 서임식에서, 서임자, 사제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받습니다. 와이클리프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서 성체변화를 찾을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는 십자가의 효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377년 로마에 의해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애의 마지막 7년 동안 그 인용문 아래 살았습니다. 기억하세요, 앞서 말했듯이, 예정된 것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원리는

교회 내에서 교리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의 시기에 호소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이클리프는 교회란 구원에 예정된 모든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그의 논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을 찾거나 거짓과 그런 종류의 투쟁이 일어나는 어려운 시기에 교회 지도자와 사상가들이 호소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예정론적 주제입니다.

그는 구원에 예정된 모든 자들의 모임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대한 그의 논문에서 교회입니다. 그는 어거스틴과 동의하여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원, 그는 분명하고 분명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 모든 것이 그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로 만들었고, 교회에 의해 페르소나 정죄를 받았습니다.

얀 후스(Jan Hus, 1373~1415)는 초기 체코 개혁가였다. 그는 20대 초반에 개종을 경험했다. 위클리프의 사상은 그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교회의 영성에 대한 그의 가르침이 영향을 미쳤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 주변의 상황이 나빠 보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의 백성을 갖고 계십니다. 어쩌면 그들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그가 택하신 백성을 갖고 계십니다.

후스는 파문당했습니다. 후스는 안전한 상담과 콘스탄츠 공의회에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이단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이것이 공식 성명이었습니다. 그는 파문당하고 그의 견해 때문에 화형당했습니다.

그의 진술을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두 의로운 사람은 그리스도를 특정한 거룩한 교회의 머리로 구성합니다. 다시 말해서, 힘든 시기, 성직자의 부도덕함, 사람들의 부도덕함.

사람들은 기독교 교리를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 길을 갑니다.

겉으로는 소수의 신자들이 모인다. 그들은 작은 무리다. 그들은 남은 자들이다.

그들은 신의 사람들이고, 그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가 존재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두 의로운 사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특정한 거룩한 교회를 구성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가톨릭, 즉 보편적인 것은 로마가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그의 의미이지만, 거룩한 가톨릭, 즉 보편적인 교회는 예정된 것의 총체이며, 다시 말해서 선거에 호소하거나,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예정된 것에 호소합니다. 그것은 후스의 책인 교회에서 발췌한 것으로, 1413년에 쓰여졌습니다.

아주 일찍, 그 문서의 두 번째와 세 번째 페이지 . 경건한 사람이 고군분투하며 믿는 교회와 하나님의 선택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이제 루터로부터 종교 개혁이 왔습니다.

그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일에서 면죄부 판매의 남용을 가져왔습니다. 아기를 위해 우유를 사는 데 돈을 써야 할 사람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연옥에서 꺼내는 데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오, 로마의 교황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았다면, 그는 즉시 이것을 중단시켰을 것이다. 로마의 교황이 면죄부의 50%를 차지하기 위해 계산대에 손을 댄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어쨌든 루터교 개혁에서 표준이 나왔고, 개혁은 상징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신앙 고백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싶어했습니다. 신앙 고백에 기반한 교리 문답, 교육 도구, 그리고 때로는 다양한 수준의 교리 문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전통에는 원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짧은 교리 문답과 성인과 장로를 대상으로 한 더 큰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1530년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멜랑히톤이 저자였습니다. 루터의 뛰어난 후계자가 저자였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멜랑히톤이 저자이고 가르침은 루터의 가르침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8.7조. 죄송하지만 후스에 대해 더 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메모를 더 찾았습니다.

제 화살이 잘 추적되지 않았습니다. 후스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싶습니다. 그는 개혁가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를 개혁 전이라고 부를 수 있고, 제가 한 말은 모두 좋은 거죠, 맞죠? 하지만 그를 그의 역사적 맥락에 놓으면, 그의 신념은 복음주의와 전통적인 가톨릭 교리의 혼합이었습니다.

제 말은, 당신은 무엇을 기대했나요? 루터가 모든 것을 뒤졌다는 것은 한꺼번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토론에서 로마 가톨릭 토론자들은 그를 솔라 스크립투라의 입장으로 강요했습니다. 당신은 공의회와 교황이 실수를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수도사로서 그는 쉽게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밀려났을 때, 그는 성경이 명확하고, 그들이 성경과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를 바로 그 자리에서 이단자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그의 사상은 발전했고, 그는 벌레에 의해 죽었을 것입니다. 그의 왕자가 그를 납치하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망했다고 생각했고, 성경 등을 번역한 성 안에 숨어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만. 그러니 공평하게 말해서, 후스는 루터가 아닙니다.

하지만 루터가 벌레에 있었을 때, 그는 그들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당신만 이런 것들을 믿습니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고, 후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개혁 이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불공평한 명칭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스의 신념 체계는 복음주의적이고 로마 가톨릭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교회에 대한 성경적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의 보편적 신권.

그러니 로마 가톨릭은 물론 여전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개혁 이전의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7장. 또한 우리 사이에서는 하나의 거룩한 기독교 교회, 즉 콘스탄티노플, 콘스탄티노폴리스 신조가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오, 당신은 정확히 옳습니다. 정확히 옳습니다. 381.

오늘날, 모든 다양한 종교의 신학 서적에는 한 섹션이 있습니다. 교회의 속성. 연합.

신성함. 보편성. 사도성.

그리고 당연합니다. 교부들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기독교 교회는 하나이며, 그것은 영원히 존재하고 남을 것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이것은 모든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믿는 교회.

예를 들어, 후스로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후스를 알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요. 그들 사이에서는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거룩한 성례전이 복음에 따라 집행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표식이라고 불리는 것의 씨앗입니다. 개혁자들은 교회의 속성을 기반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습니다.

진실과 거짓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까다로웠습니다. 루터와 칼빈은 모두 특정 로마 가톨릭 사제를 신의 사람으로, 특정 로마 가톨릭 회중을 교회로 인정했습니다.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로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이에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시나요? 그들은 마크를 고안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크는 말씀의 순수한 가르침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성례전의 적절한 집행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규율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이에서는 하나의 거룩한 기독교 교회가 영원히 존재하고 남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지옥의 문이 내 교회에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거룩한 성례가 복음에 따라 집행되는 모든 신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스도교회의 참된 일치성을 위해서는 복음이 순수한 이해에 따라 전파되어야 하고, 성례전이 신의 말씀에 따라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교회의 참된 일치성을 위해서는 사람들이 제정한 의식이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지켜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루터교도들은 이 초기 시기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 1517년 루터가 논제를 못 박았다. 이것은 1530년이다. 꽤 초기다.

그들은 어떤 것들이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정부나 다른 것들에 대한 세부 사항들이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4:4, 5에서 서신을 인용하면서 말한 대로, 몸도 하나이고 영도 하나니, 너희가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하나인 것과 같고, 주님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다. 이것이 교회의 연합에 대한

성경적 증거이며, 우리는 나중에 이에 대해 다룰 것이다. 아우구스투스의 신앙고백 1530의 8장.

다시 말해서, 기독교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모든 신자와 성도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많은 거짓 기독교인, 위선자, 심지어 노골적인 죄인도 경건한 사람들 사이에 남아 있습니다. 성례전은 그것을 집행하는 사제가 사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지적하셨듯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마태복음 23:2). 이게 뭐죠?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혼합된 모임이라는 원칙에 대한 아우구스투스의 호소입니다. 보세요? 참된 신자들이 교회를 구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들 사이에는 거짓 그리스도인, 위선자, 심지어 공개적인 죄인도 있습니다.

신약에 없었나요? 네, 고린도전서 5장에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 가운데서 사람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와 계모와 사는 사람, 마치 남자가 아내와 사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아우구스투스의 분열주의자들, 그리고 반대 의견을 가진 다른 모든 사람들은 정죄받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조차도 참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너희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나투스파 논란, 분열에 대한 또 다른 대응, 알겠어요? 도나투스를 따르는 분열주의자들, 도나투스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박해가 잠잠해진 후, 박해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한 목사나 사제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 세례가 무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알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전파한 복음을 믿는다면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글썄요,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안 된다고 말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기뻐합니다.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성례는 인간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의식이며, 그것을 준 사람의 라이프스타일과 상관없이 유효합니다. 그는 교회의 사악함을 장려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객관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없습니다. 평생 당신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두려움에 떨며 추적할 필요는 없고, 그들이 정말 실수하면 당신의 세례가 무효가 되도록 당신에게 세례를 준 사람을 추적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것은 말씀과 성례에 대한 오해입니다.

1560년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그러니까 30년 더. 칼빈의 연대는 1509년에서 1564년입니다.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움직이고 있고 스코틀랜드는 개혁신앙을 진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은 실제로 1646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나올 때까지 영어권 사람들의 표준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소프트볼을 하지 않습니다.

오, 그들은 당신이 볼 수 있듯이 휘두르며 나옵니다. 와우. 1560년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16장.

우리는 한 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믿으므로 삼위일체에 대한 강조점을 주목하십시오 . 우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금, 그리고 세상의 끝까지 하나의 교회가 있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어로 교회를 뜻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교회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말했듯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연합이 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무리와 무리의 사람들이며, 강조점에서 예정되어 있으며 ,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그분을 올바르게 경배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믿는 교회, 그러니까 두 가지 각도가 있습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믿음, 참된 믿음.

하나님의 주권은 단지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저 스스로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 안에서 일하셨으므로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그를 올바르게 경배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누구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자 배우자이기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느 교회가 가톨릭인가요? 그들이 다음에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오, 맞아요, 교황의 정강이를 걷어차야 해요. 어느 교회가 가톨릭인가요? 그것은 모든 시대와 모든 영역, 국가, 언어의 선출된 사람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사귀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의 성령의 거룩함을 통해. Whew! 그들은 삼위일체와의 연합, 그리고 다시 삼위일체주의의 관점에서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삼위일체와의 연합입니다.

신은 한 분이시죠. 인격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삼위일체론.

따라서 그것은 세속적인 사람들의 친교가 아니라 성인들의 친교라고 불립니다. 스코틀랜드인들은 교회 규율에 강했고, 사람들이 그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에 강했습니다. 그들은 교회 규율에 너무 강할 수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성도들의 교제, 하늘의 예루살렘의 시민으로서 가장 헤아릴 수 없는 혜택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교제. 즉, 한 분의 하나님, 한 분의 주 예수님, 한 분의 믿음, 에베소서 4장을 다시 듣습니다. 한 분의 세례, 그 교회, 교회에서 생명도 영원한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로 가봅시다. 우리는 그들의 신성모독을 철저히 혐오합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바를 말하고 빙빙 돌지 않기를 바랍니다. Whew! 우리는 평등과 정의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신성모독을 완전히 혐오합니다. 그들이 어떤 종교를 공언하든 말입니다. 오, 영어가 발전했고, 그것은 이 시점에서 무엇과 분리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반다원주의자들입니다. 알겠어요? 당신이 신성한 존재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다면 생명도 구원도 없으므로 아무도 그 참여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가 자기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에게 주신 자들과 때가 되어 그에게 와서 그의 교리를 공언하고 그를 믿는 자들뿐입니다. 이것은 요한 복음의 언어입니다.

요한의 선거 주제 중 하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람들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아들에게 오는 것은 아들 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Whew!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성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보세요. 때가 되어 그를 믿는 자들은 우리는 충실한 부모와 함께 아이들을 이해합니다. 스코틀랜드인의 고백은 두 가지 의미에서 언약적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한 백성이며, 제가 가족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이들이 포함됩니다.

아이들이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인가요? 물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 포함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보이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그분만이 자신이 택하신 사람을 알고 이해하십니다. 떠난 택함받은 자들, 즉 죽은 자들, 일반적으로 교회 승리자라고 불리는 자들과, 아직 살아서 죄와 사탄에 맞서 싸우는 자들, 그리고 이후에 살게 될 자들- 스코트의 고백서 1560년.

아, 알겠어요. 이 노트의 후반부에서 로마를 공격하는 내용이에요. 와, 그냥 로마를 비난하는군요. 그리고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로마에 의해 죽임을 당했어요.

이해할 만합니다. 1561년 벨직 신앙고백은 오늘날까지 믿는 개혁 기독교인들이 세 가지 형태의 연합이라고 부르는 세 가지 개혁 상징 중 하나입니다. 장로교 전통은 스코틀랜드와 런던에서 열린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교리적 기준은 웨스트민스터 표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입니다. 장로교의 개혁 기독교에 대항하여 기독교를 개혁한 세 가지 형태의 연합은 영국이 아닌 유럽 대륙에서 나왔고, 스코틀랜드와 네덜란드가 그 예입니다. 어, 세 가지 형태의 연합은 벨직 신앙고백(잠시 후에 인용하겠습니다)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리고 도르트 신학의 신학적 진술인 교리입니다.

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벨직 신앙고백, 1561. 기본적으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과 같은 시기.

27조, 우리는 하나의 단일 가톨릭 또는 보편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그의 피로 씻기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인봉되기를 기다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거룩한 회중과 모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 문서에서 인봉에 대한 첫 번째 언급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봉은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4장, 고린도후서 1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인장으로 주심으로써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식별되는 것을 덜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시작부터 존재해 왔고 끝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언약적, 하나님의 한 백성은 끝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 나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시며 신민 없이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존 칼빈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다. 그는 신하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단절이 없는 건가요? 네, 단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들은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 백성 사이의 연속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교회는 온 세상의 분노에 맞서 하나님에 의해 보존되고 있습니다. 비록 잠시 동안 사람들의 눈에는 매우 작아 보일지라도, 마치 꺼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거룩한 교회는 특정 장소나 특정 사람에게 국한되거나, 구속되거나, 제한되지 않고, 전 세계에 퍼져 있고 분산되어 있지만, 여전히 마음과 의지로, 한 분의 동일한 영, 대문자 S로, 믿음의 힘으로 결합되고 연합되어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다룰 것입니다.

이것은 로버트 A. 피터슨 박사가 교회 교리와 최후의 것들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세션 7, 교회의 역사적 신학입니다.